

제 1 교시

국어 영역

성명

수험 번호

- [01] 김광균, 「추일서정」
- [02] 김수영, 「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」
- [03] 김소월, 「초혼」
- [04] 박목월, 「이별가」
- [05] 이육사, 「노정기」
- [06] 기형도, 「질투는 나의 힘」
- [07] 이용악, 「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」
- [08] 정일근, 「흑백 사진-7월」
- [09] 오장환, 「성탄제」
- [10] 박남수, 「새 1」
- [11] 정지용, 「장수산 1」
- [12] 김종길, 「고고(孤高)」
- [13] 김영랑, 「거문고」
- [14] 광재구, 「굴동리 일박」
- [15] 백석, 「북방에서—정현웅에게」→ 2500 원개
- [16] 박봉우, 「나비와 철조망」
- [17] 조지훈, 「화체개현(花體開顯)」
- [18] 최승호, 「누에」
- [19] 이형기, 「낙화」
- [20] 박성룡, 「과목」
- [21] 김광섭, 「산」
- [22] 이준관, 「가을 떡갈나무 숲」
- [23] 신경림, 「장자를 빌려 - 원통에서」
- [24] 고재중, 「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」
- [25] 이수복, 「봄비」
- [26] 이지철, 「청산행」→ 2506 원개
- [27] 문정희, 「짚레」
- [28] 김선우, 「낙화, 첫사랑」
- [29] 김광규, 「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」
- [30] 김남조, 「설일(雪日)」
- [31] 고정희, 「상한 영혼을 위하여」
- [32] 구상, 「초토의 시·8-적군 묘지 앞에서」
- [33] 김춘수, 「꽃을 위한 서시」
- [34] 오세영, 「등산」
- [35] 신석정, 「들길에 서서」
- [36] 송수권, 「등꽃 아래서」
- [37] 이육사, 「교목」
- [38] 김종길, 「성탄제」

- [39] 김광규, 「뺨셈」
- [40] 최승호, 「복어」
- [41] 오규원, 「물증」
- [42] 신동집, 「오렌지」
- [43] 이상, 「거울」
- [44] 오세영, 「그릇·1」
- [45] 이성복, 「꽃 피는 시절」
- [46] 장석남, 「배를 밀며」

국어 영역

[01]

(가)

낙엽은 폴-란드 망명정부의 지폐
포화(砲火)에 이즈러진
도룬 시(市)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
길은 한 줄기 구겨진 벡타이처럼 풀어져
일광(日光)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
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
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
포플라 나무의 근육(筋骨) 사이로
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
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
그 위에 세로팡지(紙)로 만든 구름이 하나
자욱-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
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
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
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
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

- 김광균, 「추일서정」 -